

도내 제조업체, 2분기에도 '빨간등'

최근 우리경제는 전 세계적인 보호 무역주의 확산과 대통령이 끝나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104개 제조업체에서 회수된 조사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2/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9로 조사돼 2015년 2/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뜻하는 BSI는 100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다.

이처럼 2/4분기 제조업체 체감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중국 사드 보복 문제와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문제 등으로 대외적인 악재가 연속되면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내

▶전북상협 조사 결과

BSI 79로 2015년 이후 8분기 연속 기준치 하회

내 한한령·경기둔화가 대외 불확실성의 큰 요인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기술개발 부가가치 창출해야”

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극심한 내수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4분기 실적지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의 보호주의 채택에서 오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수출과 내수가 회복되지 않아 BSI가 '53'을 기록해 2010년 3/4분기 이후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별 경기전망을 보면 모든 항목이 기준치 '100'을 하회하면서 어려운 경기실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133)와 금속기계업종(107)의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타 업종의 경우 전분기 대비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북의 주력산업인 화학(84), 자동차(74)의 2분기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출유형별로는 수출기업의 경우 군산조선소 조업중단에 따른 선박구조물과 부품 수출에서 빛어지고 있는 차질과 사드배치 여파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감소 또한 우려되면서 기업경기전망지수가 '58'을 기록했다.

내수기업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조사 항목 전체에서 BSI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는 대내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탄핵정국과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가장 클 것이라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22.6%, 금리 변동 가능성 18.0%, 가계부채 9.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우리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중국의 한한령 및 중국의 경기둔화(28.7%)' 그리고 '미국 트럼프 리스크(25.2%)'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원유 등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16.5%)',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16.1%)', '북한 리스크(7.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다각화(26.6%)'와 '혁신기술 개발(25.8%)', '해외 신시장 개척(18.8%)', '기존사업 구조조정(17.2%)'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이선홍 회장은 “오랜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정부 조지집행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우리 기업들도 미국과 중국 위주의 수출에서 벗어난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AI 신속 진단 기술 '진화'

원광대 인공공통감염병연구센터 여선주 교수팀
압타머 설계 구조 모델링 방법으로 진단시스템 개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인공공통감염병연구센터 여선주 교수팀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신속 진단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성과를 분자영상 진단 및 치료법 분야에서 최고 학술지로 인정받는 국제학술지 Theranostics(논문인용지수: 8.854)에 발표했다.

여선주 교수는 항체를 대체할 수 있는 압타머(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생고분자 물질)를 설계하는 구조 모델링 방법을 신규로 고안한데 이어 이를 도입한 15분 신속진단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 설계방식으로 제작한 압타머가 효과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현장진단에 성공함으로써 조류 인플루엔자 신속 진단 기술을 진화시켰다.

기존의 신속 진단 방식은 항체에 의존해 왔으며, 항체 개발은 마우스에 표적항원을 면역시켜 장기간에 걸친 면역반응을 통해 이루어져 상업적으로 유용한 항

체는 현재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끊임없이 근본적인 항체 대체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인플루엔자의 경우 교병원성과 저병원성의 항원이 매우 흡사해 특이 항체 개발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과학계에서는 항체 개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압타머 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설계 방식에 의존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선주 교수는 “항체나 기존 압타머의 랜덤 스크린 방식을 탈피해 그림 1과 같이 진단 시 필요한 상호결합력을 예측하는 구조 모델링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며, “이 방식으로 설계된 펩타이드 압타머가 고가의 장비 없이 소형 휴대장비로 15분 만에 조류 인플루엔자를 특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법이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익산=장영민 기자



11일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서 의료방사선 정도관리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사진은 진흥 정무부지사, 김생기 정읍시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의료방사선 검증기관 '동지'

정읍 첨단과학산단에 정도관리센터 준공... 시험센터도 착공

의료방사선 정도관리센터가 11일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에 동지를 틀었다. 정읍시 신정동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정읍센터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진흥 정무부지사, 김생기 정읍시장, 이명철 한국방사선진흥협회장,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진흥정책과장, 이학수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등 관련 기관 관계자 및 직원, 시민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정도관리센터는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의료방사선 치료가 활성화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의료방사선 장비에서 방사선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및 교정, 관계자 교육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정도관리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3

년여에 걸쳐 총 76억원(국비 40, 도비 8, 시비 18, 협회 10)이 투입돼 부지 1만3,420㎡, 연면적 1,476㎡ 지하 1층 지상 1층의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방사능 정밀 측정이 가능한 장비 3종을 구축했고, 지하층은 방사선기기 정밀교정에 필요한 방사선 기준 조사시스템 3종 및 다양한 소형 측정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정도관리센터는 방사선장비의 교정

업무와 교육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교정업무는 방사선 방호장비검사와 치료 장비 검사로 나뉘며, 의료방사선 정도관리센터 준공 후에는 연간 1,200건의 교정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업무를 방사선진흥협회 고유 업무로 연간 1만명 이상을 정읍 의료방사선 정도관리센터에서 교육시킬 계획으로 연간 약 10억원의 경제효과

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날 동시에 착공식이 열린 방사선기기 시험센터는 국내 방사선기기에 대한 성능평가 지원(인증획득)을 위한 평가 장비(9종)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방사선 장비의 성능시험, 인수시험, 전기시험 및 해외인증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2020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방사선기기 인증획득을 위한 전문센터가 전무한 상황으로, 방사선기기 공인시험은 해외기관에 처리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해외에 유출되고 있는데 센터가 설립되면 이를 국내에서 처리가 가능해 연 46억원의 해외유출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용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도내 우수 식자재, 호주 수출길 올랐다

도-경진원, 고슴 등서 생산
제품 4만5000불 규모 선적

전북에서 생산된 우수 식자재가 11일 호주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수출길에 올랐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고슴, 푸르메FS, 성가정식품 등에서 생산하는 고추장, 절임식품, 들기름 등 4만5,000불 규모의(20피트 컨테이너 한 개) 도내 우수수출품 수송을 선적했다.

이번 수출은 지난달 3월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개최한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통해 얻은 성과로서, 상담회에 참가한 호주 현지 유통업체인 KS Global Trading과 3년간 12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초도물량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와 경진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캐나다, 인도, 베트남 등 11개국 15명의 바이어를 전북도 글로벌 통상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 59개사와 1대1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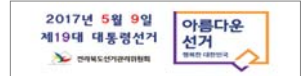
경진원 홍용웅 원장은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외시장 개척 활동 강화와 수출기업이 피루에와 닿을 수 있도록 시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세월호, 1091일만에 인양

세월호가 11일 오후 3시58분께 거치대에 안착하면서 1091일간의 긴 항해에 마침표를 찍었다.

앞으로 정박은 일주일 간의 세부 계획을 마련한 후 미수습자 9명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철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11일 전남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양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미수습자 수습체제로 전환한다”면서 “선체 외부세척과 방역, 선체 안전도 조사 후 선체 내부 수색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2017. 5. 3.(수) - 5. 7.(일)
광한루원·요천·시내일원

제87회
춘향제가 세기의 사랑
공연예술축제로 태어납니다.

완월정 세기의 사랑 예술공연, 달빛콘서트 | 광한루악 전통소리정 | 춘향사당 실험장극장 | 거리춤 걸스락 페스티벌, 이만사판공연

춘향! 사랑으로 너를 그리다

주최·주관, 춘향제추진위원회 후원, 남원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